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과 형성

우연주*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Korean Perspectives on Parks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Woo, Yun-joo* · Pae, Jeong-Hann**

*Dep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Korean perspective on parks and the beginning of urban parks in the port opening perio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how Koreans viewed and accepted the idea of a park as imported from western culture and with what attitudes. Analyzed sources included: "Susinsa's Record"(修信使記錄) by Susinsa(修信使) who wrote the inspection records of foreign modern cultures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port opening, "Seoyukyunmun"(西遊見聞) by Yu Kil-jun(兪吉濬) and "Yun Chi-ho's Diary"(尹致昊日記) by Yun Chi-ho (尹致昊), which are representative works by students sent abroad, as well as some records of Seo Jae-pil(徐載弼) and The Independence Club(獨立協會) such as "The Independent"(獨立新聞), which contains the records of 'Independence Park'.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literature that reexamines and interprets the related data from primary sourc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who led the modern reformation in the Port Opening period adopted and developed social thinking regarding parks. Indeed, it was possible to witness the gradual sophistication of the concept of a park from the time of Susina's thoughts on parks to that of Yu Kil-jun's support for the need and importance of parks and Yun Chi-ho's cultural and artistic interest in parks. Also, Seo Jae-pil and the Independence Club drove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ce Park, which was designed to incorporate social values and symbols while also serving to meet the needs of recreation, leisure, hygiene, and enlightenment. The Independence Club consistently advocated for the necessity of open spaces and delivered this message to the public via article writing.

In short, even prior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s shared thoughts and exchanged opinions on parks. Parks were to be created not just as a copy or transplant of western parks, but were constructed based on social demands and necessity. As few studies have taken the approach of identifying this origin of Korean parks, thus, this research which traces back the origin of Korean parks, is significant.

Key Words: Urban Park, Susinsa, Yu Kil-jun, Yun Chi-ho, Independence Park

Corresponding author: Jeong-Hann P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77, E-mail: jhannpae@snu.ac.kr

국문초록

개항(187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해 온 공원의 태동기 역사를 규명하고자 한 본 논문은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관 형성과 도시 공원의 성립에 관해 고찰하였다. 즉, 서구로부터 도입된 공원 개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그것을 어떤 태도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개항 이후 최초로 외국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던 수신사의 『수신사기록』에서부터 해외 유학생들의 견문 기록 중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볼 수 있는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윤치호의 『윤치호일기』, 그리고 한국 최초의 자주적 공원인 ‘독립공원’ 조성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독립신문』을 비롯한 서재필과 독립협회의 몇 가지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가능한 한 1차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발굴하고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개항기 한국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었던 지식인들 사이 공원 의식이 생겨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신사의 공원 인식에서부터 유길준의 공원의 필요성 인식, 그리고 윤치호의 공원에 대한 문화적·예술적 관심에 이르기까지, 공원관이 확대되고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재필과 독립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독립공원은 사회적 의미와 상징을 담은 공간으로 운동, 휴식, 위생, 계몽을 위한 도시 공원이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비롯한 도시 녹지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즉,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인들에게는 공원에 대한 의식과 견해가 형성되었으며, 단순한 모방과 이식이 아니라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공원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공원의 근간을 이루는 태동기 역사를 규명하고자 했던 본 논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져 왔던 한국 공원의 뿌리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도시 공원, 수신사, 유길준, 윤치호, 독립공원

1. 서론

한국에서 ‘공원(park)’ 개념이 존재해 온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공원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시기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으나, 공원, public park, public garden, 公園이라는 용어와 함께 1876년 개항 이후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강신용과 장운환, 2004). 한국의 공원은 흔히 근대 문물 중 하나로 서구의 공원을 단순히 ‘모방’했다거나 일제 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를 통해 ‘이식’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새로운 근대 사회로 편입되던 개항기¹⁾ 역사 연구의 부재 때문에 이 시기를 암울한 정체기로서만 파악한 데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개항 초기 유길준을 비롯한 윤치호 등 해외 유학생들이 남긴 기록에서 공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한 모습이 발견되며,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도심 내에 공원을 계획, 구상, 조성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료들은 거의 발굴되지 않았거나 의미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조경의 근대사가 얼마나 소홀히 다뤄져 왔는지를 반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²⁾.

본 연구는 공원이 도입되던 시점, 즉 우리나라 공원의 출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도시의 사회적 산물로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서구 공원과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당시 공원을 어떤 태도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수용하고자 했는지, 우리나라 공원관의 태동과 형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항 이후 최초의 해외 사절로서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修信使)의 『수신사기록(修信使記錄)』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한국인의 공원 인식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다음으로 한국 최초의 유학생으로서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유길준(兪吉濬, 1856~1914)과 윤치호(尹致昊, 1865~1945)의 대표 저서인 『서유견문(西遊見聞)』과 『윤치호일기(尹致昊日記)』에서 발견되는 공원 관련 기록을 통해 본격적으로 서구 문물을 체험하면서 형성된 공원 의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주도하에 조성된 최초의 공원인 독립공원의 등장에 주목한다. 독립공원(獨立公園)은 서재필(徐載弼, 1864~1951)과 독립협회(獨立協會)가 주도하여 계획, 구상, 조성했던 것으로, 당시 신문과 회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서재필과 독립협회의 공원관을 파악하고자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며, 가능한 한 1차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발굴하고 해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해석의 내용은 각 인물 혹은 단체의 사상적 배경에 기초하여 당시 이들이 서구의 공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자세한 서지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신사기록』은 『일동기유(日東記遊)』와 『수신사일

기(修信使日記)1·2』, 『사화기략(使和記略)』을 포함하는데, 이 중 『일동기유』만이 현재 번역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번역본을 포함 수신사기록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도록 한다. 최초의 국한문혼용서인 『서유견문』은 다수의 번역본이 존재하는데, 그 중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허경진의 번역본을 인용하며(허경진, 1995), 원문을 함께 신고 있는 채훈의 번역본을 참고한다(채훈, 1972). 『윤치호일기』의 원문은 시기에 따라 한문, 국문, 영문으로 쓰여졌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총 11권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중 1권(한문과 한글 부분)과 2권(영어 일기 중 일부)만이 번역되었다.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되고 있는 이 자료를 이용한다. 서재필과 독립협회의 공원관 파악을 위해서는 『독립신문(獨立新聞)』과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와 『The Korean Repository』를 활용한다. 『독립신문』은 미디어가운데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공원 관련 내용을 발췌하는데 이용하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낱자의 영문판을 확인하도록 한다. 『대조선독립협회회보』와 『The Korean Repository』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인용한 부분을 확인하고 재검토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의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와 문물을 개념이나 지식의 형태로 먼저 접한 후 그 실체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원 실체의 도입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공원에 관한 '인식'의 파악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개항기에 이러한 근대적 문화·문물을 수용한 주체는 당시 개혁을 이끌던 지식인층으로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초창기 공원 개념의 도입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들이 남긴 기록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원이라는 근대적 대상이 어떻게 '고유의 근대성'을 형성³⁾해 왔는지 그 뿌리를 탐색하는 의의 또한 지닌다.

II. 수신사의 공원관

개항 직후인 1876년부터 188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이들의 사행(使行)을 기록한 김기수(金綺秀, 1832~?)의 『일동기유』와 『수신사일기』,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의 『수신사일기』, 박영효(朴泳孝, 1861~1939)의 『사화기략』을 포함한 내용이 『수신사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다⁴⁾.

수신사행은 외교 사절의 역할과 더불어 일본의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고,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1차 수신사 김기수가 기록한 『일동기유』의 내용에서 공원과 관련한 몇 가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우에노공원(上野恩賜公園)에 있는 박물관과 같은 시설에 대한 내용⁵⁾, 제한되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던 궁원⁶⁾, 공공 장소에서의

규칙⁷⁾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인들이 공원과 관련한 개념들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존재했으리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수신사기록』 어디에서도 정확히 공원(公園)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1차 수신사행에서 동경의 우에노공원을 방문한 사실이 일본 측 자료인 『항한필휴(航韓必携)』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⁸⁾,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다. 다만 우에노공원 내 박물관에 대해서만 몇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⁹⁾, 강신용은 이것을 “외국의 공원에 관한 최초의 기록”(강신용과 장운환, 2004)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정확히 ‘공원’에 대한 내용—공원의 개념에 대한 소개 혹은 실물에 대한 묘사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시기에 존재했던 공원관이란 다소 단편적이었으며, 그 개념과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정확히 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들에 대해 몇 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은 공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공원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유학생들이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이다. 그들의 유학은 부국강병을 위한 개화 문물 도입의 보다 빠른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되었다. 개항기 조선 정부의 유학 정책은 1차와 2차 수신사행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¹⁰⁾이 파견되면서 일부 단원이 일본에 잔류하여 최초의 유학생이 되었다. 그 중 유길준과 윤치호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누구보다 일찍 서구 문물을 접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인물들이다.

III. 『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공원관

유길준은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이후 서구 문물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개화 사상을 받아들인다. 국가의 지원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한 그는 전통과 근대의 연속선상에 위치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서양 우월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문물을 우리의 전통과 잘 어울리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미국 동부에서의 체류 경험은 그가 이상주의자와 엘리트주의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대표 저작인 『서유견문』은 1889년에 탈고, 1895년에 일본에서 출판되었으며, 최초의 국한문 혼용서로서 그가 목표로 한 정치 개혁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용화, 1998). 책의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에서는 세계의 산, 바다, 강, 호수, 인종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개화의 개념과 그 내용, 근대 국가의 요건

등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서양 각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을 크게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원과 관련된 내용은 2부 6편-[정부의 직분]과 2부 8편-[세금이 쓰이는 일들], 그리고 3부 19, 20편의 각국 대도시를 소개하는 부분에 나와 있다.

먼저 유길준은 정부가 크게 힘써야 할 중요한 일로서 도서관, 식물원, 박물관, 동물원 등과 함께 공원을 개설할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소가 국민들을 교화(教化)한다고 주장한다.

나라 안의 큰 도시마다 도서관, 식물원, 박물관, 공원 등을 개설하는데, 이는 국민의 지식을 실제적으로 돕는 큰 기틀이 되므로 정부가 크게 힘써야 할 중요한 일들이다. ... 나라 안에 이러한 장소가 많으면 자연히 인습을 교도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방탕한 행실이나 사특한 습속을 잘라버리게 되어 악한 일에 빠지는 자가 적어진다 (『서유견문』 제2부 6편).

특히 공원의 '효용성'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다음의 글에서 유길준이 지녔던 공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원을 여기저기 만드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간에 ... 정신이 피곤하고 기력이 나태해졌을 때에 공원에 들어가 한가한 걸음걸이로 소요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수목이 우거진 그늘 밑에서 청명한 공기를 호흡하고 아름답고 고운 경치를 감상하면 가슴이 맑아지고 심신이 상쾌하여 고달픈 모습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 공중을 위한 즐거움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실상 부유한 분위기를 가난한 자와 함께 이바지한다는 뜻이므로 빈자가 부자를 질투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서유견문』 제2부 6편).

유길준은 공원을 도시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었으며, 공원이 교육과 휴식, 그리고 심신의 건강을 위한 위생상의 목적¹¹⁾으로 활용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유견문』이 유길준의 정치 개혁 사상의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원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위의 논의는 그의 사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된다. 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간에'와 '공중을 위한'이라는 표현에서 누구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는 근대 도시 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길준은 많은

재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부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빈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말하고 있다. 이는 첫째, 그가 수목이 우거지고 고운 경치가 있는 공원의 이미지를 '부유한,' 즉 발달된 서구 문명의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원이 복지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을 비롯한 도시 기반 시설의 조성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 2부 제8편 '나라에서 공사하는 일'에 나와 있다.

나라에서 공사하는 일, 이 일도 나라의 재정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나라 국민들이 함께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들의 재주나 학식이 모자라 이처럼 커다란 공사를 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전국적인 세금이나 각 지방의 세금을 들여서 그 일에 적당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서유견문』 제2부 8편).

즉, 유길준은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구축함에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힘써야 함을 강조했으며, 더불어 이러한 사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함께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¹²⁾.

계속해서 『서유견문』의 제 3부 19, 20편을 통해 서양 각국 대도시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는 각 도시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물, 공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이르는 부분까지 비교적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도시별로 각기 다른 공원의 특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소개함은 물론이고 비교적 정확한 시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유길준이 미국으로 가기 전 일본에서 유학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서구 공원을 직접 체험하기 전부터 이미 공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미국 및 유럽 여러 도시들을 답사할 당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시내에 있는 공원의 수가 적지 않은데, 가장 커다란 곳은 중앙 공원(Central Park)이다. 그 너비는 남북이 7리를 넘고, 동서도 2리나 된다. 이 공원은 시내 요충에 자리 잡고 있는데, 땅값이 금값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동으로 각출한 돈으로 사들여서 여러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서유견문』 제3부 19편).

유길준은 특히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시민들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된 공원임을 강조하며 공원의 분위기에서부터 세세한 공간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유길준이 센트럴

파크에 주목한 것은 이것이 가장 크고 시내의 요충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주 비싼 땅에 시민들이 돈을 모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은 공원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도시의 공공 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중요시한 유길준의 사고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이름난 기술자 50명을 고용하여 각기 자기들 생각대로 기량을 다투게 하였다. 원래 이 땅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빌려서 동산과 골짜기같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고, 푸른 소나무와 늘어진 버드나무를 산간 좌우 언덕에 심어, 그윽한 풍치와 맑고 아담한 운취가 사람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였다. 그같이 시끄럽고 요란한 도시 한가운데 은연히 산림의 분위기가 있으며, 산봉우리와 같이 돌아서는 곳에 넓적하게 전망이 트이면 한 이랑 맑은 호수가 거울처럼 잔잔히 펼쳐져, 물결과 연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에 작은 섬 한 점이 반달처럼 굽어 돈다. 산 위 정자에 오르면 아름다운 나무가 난간에 부딪치고 맑은 아지랑이가 옷 속으로 스며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강호(江湖)에 살고픈 생각을 저절로 일어나게 한다 (『서유견문』제3부 19편).

공원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동산과 골짜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모습, 맑은 호수, 산 위의 정자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평평한 땅에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이러한 모습을 만든 것이라 밝히고 있는 부분에서 유길준이 공원을 단순히 관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원의 조성 방식 등에 관한 지식을 갖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한 표현의 사용은 공원의 풍경이 마치 우리나라의 산수를 감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처럼 유길준이 서구의 공원을 묘사할 때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그가 그것을 의도했던 안 했든 적어도 서양의 공원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 동양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소나무와 버드나무,’ ‘그윽한 풍치,’ ‘아담한 운취,’ ‘은연한 산림의 분위기,’ ‘산봉우리’ 등과 같은 표현의 사용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정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구의 공원에 ‘정자’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자와 비슷한 외양 혹은 기능을 지닌 서구 문물에 대한 우리 식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³⁵⁾. 이렇게 서구 문물에 대해 동양적 관점의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그의 전통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리라 판단된다. 유길준은 서구의 근대적 산물인 공원이라는 문물을 소개함에 있어 생소한 언어와 표현이 아니라 한국적인 시각과 언어로 이해하고 전달했던 것이다.

IV. 『윤치호일기』에 나타난 윤치호의 공원과

윤치호는 일본, 중국, 미국에서 유학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하였다. 특히 상해 유학 당시 기독교로의 개종과 미국 남부에서의 경험은 윤치호의 생애 전반을 지배하는 근대 문명관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1895년 귀국 후에는 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의 문명 개화에 힘쓴다. 그가 남긴 『윤치호일기』는 1883년부터 1943년까지 60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활동과 국내의 상황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 지녔던 서구와 근대 문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진솔한 사료로 그 활용도가 높으며, 공문서나 신문·잡지 등 정제된 글들에 비해 가감 없이 당시 상황을 속속들이 담아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의 일기에서 정원과 공원에 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윤치호의 사상적 배경이 공원에 투영된 일기의 내용들은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윤치호의 개화 사상의 중심에 있는 ‘기독교적 관점의 세계관’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곳의 공원에는 몇몇의 나무상이 있는데, 내가 볼 적에 그다지 품위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들 나무상과 사진·그림을 보고 있는 남녀 군중이 유혹의 경지를 넘는 순수한 존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윤치호일기』 1896년 8월 13일)

이 글은 윤치호가 1896년 러시아 방문 당시 페테스부르크(Petersburg)에 있는 공원에 대한 견문을 적은 것이다. 윤치호가 상해에서 처음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절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원 곳곳에서 발견되는 나무상의 존재는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이다. 한편, 위의 내용에 대해 강신용은 “유교적인 윤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 ... 공원 내의 시설물을 예술품이나 공원 장식물 아니라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강신용과 장윤환, 2004)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윤치호가 조선의 어지러운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유교 사상에 두고 있으며, 이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의 근간을 기독교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해석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특히 위의 글은 윤치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인 1896년에 기록한 것이므로 강신용의 해석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윤치호의 사상의 중심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일본 동경 사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4월에 유명한 절인 석왕사를 방문했다. 석왕사는 그 장소와

접근하는 통구(洞口)가 굉장히 아름답다. 하지만 건축물들이 모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 좋은 절의 나쁜 활용의 예로 보여진다. 예술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연이 모든 것을 했으며, 인간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일본이 이와 같은 장소를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몇 년 안에 이러한 장소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꿨을 것이다 (『윤치호일기』 1899년 12월 31일).

그는 정원, 공원, 그러한 장소를 꾸미는 조경술에 대해서도 일본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그의 일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¹⁴⁾.

마지막으로 윤치호가 평생을 두고 고민했던 문제인 '인종주의' 역시 공원에서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는 '중국인'과 '개'를 출입 금지시키는 상해의 한 공원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다.

...중식 후 공원에 가다. 녹음이 짙고, ... 경치가 새롭다. 중국사람들, 상하 귀천할 것 없이 공원 밖에서 주저하면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다. 중국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한탄하다. ... 공원으로 통하는 입구에는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No dogs and Chinese are admitted)'라고 쓴 나무 팻말을 세워 두어 중국인에 대한 공원 입원 금지와 모욕을 표명했다 (『윤치호일기』 1885년 5월 11일).

영국인 조계지 내에 있던¹⁵⁾ 이 공원은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모욕과 함께 일부 민족의 특권 의식을 보여주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윤치호는 이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몇 십년이 지난 노년의 일기에도 당시의 경험을 재차 기록하였다¹⁶⁾. 또 그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공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글렌데일 공원(Glendale Park) 역시 '유색 인종'의 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있었다¹⁷⁾.

이처럼 그의 사상적 배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공원의 경험 및 감상과 더불어 윤치호가 일상 생활 또는 여행에서 접한 공원이라는 대상은 그에게 문화적인 흥미와 개인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가 일기에 기록한 정원과 공원 관련 내용은 그 양이 상당하며 특히 윤치호의 정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일기의 여러 부분에서 확인된다¹⁸⁾. 정원의 감상과 취미는 그가 공원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나머지 공간을 나무와 꽃들 그리고 정원들에 주는 대신, 조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공간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상관없이 이것을 박스와 같은 건물로 가득 채우는 것에 완전히 열광한다. 공간 어디에도 숨을 쉴 틈이 존재하지 않는다 (『윤치호일기』 1903년 6월 19일).

윤치호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미국의 공원과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외형이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미국과 러시아의 공원을 비교한 다음의 구절에서 확인된다.

굉장한 규모의 이 공원은 잘 정돈된 형태로 유지되어 있다. 내가 러시아 공원에서 좋아하는 점이란 미국에서처럼 촘촘하게 번지르르한 꽃 화단이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로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멋진 도로, 아름다운 산책로, 자연스러운 잔디, 웅장한 나무들—이것들이 러시아의 공원을 구성하고 있다 (『윤치호일기』 1896년 6월 14일).

윤치호는 당시 미국 공원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기하학적 형태의 화단'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러한 윤치호의 취향은 그보다 몇 년 전 시카고의 링컨공원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¹⁹⁾. 반대로 유럽 공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서정적인 풍경으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²⁰⁾. 더불어 미국인들과 비교해 유럽인들의 조경술을 훨씬 수준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그들의 과학과 예술 문명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누가 도시에 있는 언덕의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유럽인들의 거주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공공 정원(public garden)은 아름다우며 여행자로 하여금 유럽의 과학과 예술이 험벗은 섬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놓은 방식을 알게 한다. ... 그들에게 돌을 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견고한 요새로 바꾸어 놓을 것이고 가치 없는 언덕을 홍콩과 같은 도시로 만들어 버린다. ... 유럽인이 자부심을 가져도 당연한 일이라 (『윤치호일기』 1896년 12월 24일).

위 글에서 '공공 정원'으로 표현된 공원의 존재는 주거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 윤치호는 공원을 단순히 도시에 필요한 요소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문화로, 예술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유길준의 공원 의식과 비교해 보면, 윤치호가 한층 발전된 공원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 지식인들이 지녔던 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귀국 후의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었을 것이다.

V. 독립공원과 서재필·독립협회의 공원관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재필은 미국 망명 후인 1890년 6월 19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적을 취

득했다. 그는 서양에 대한 절대적인 동경을 지니고 있었으며, 서구의 뛰어난 문물을 조선에 소개하여 국민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서재필은 귀국 후 독립신문의 고문이자 협회의 대표로서 독립협회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독립문 건립의 책임자로서 독립공원의 배치와 기본계획 수립에 자문 역할을 했다²¹⁾.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 조성 사업은 1895년 영은문(迎恩門)을 철거한 자리에 독립문(獨立門)을 건립함과 함께 시작되었다. 1896년 6월 20일 『독립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며, 같은 날 이 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에도 독립문 건립에 대한 기사가 나갔다. 그 내용은 주로 독립문이 지니는 의미와 건립의 목적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주변을 ‘독립공원지’로 만드는 계획 또한 발표되었다.

일간에 조선을 스랑 흐는 사름들이 중추원에 모혀 모화관을 갖쳐 독립 공원디를 만들 일을 의론 훌터인데 ... 이 공원디가 조선이 독립헌 표로 몬드느거사라 조선 신민되야 조선이 독립 된 거슬 경스로 아니 녀이느거슨 애국 애민 흐는 마음 이 없는 사르이니 그런줄을 알고야 엇지 독립 일에 인연하야 적고 크고 간에 힘을 안 쓰는 자가 잇스리요 ... 공원디가 된 후에는 내외 국민이 경호데 가서 맑은 기운을 마시고 운동을 흐라면 거기 가서 쉴터이니 인민의 위생에 대단히 유조 혼 일이라 (『독립신문』 1896년 7월 2일 논설)

독립문 건립과 함께 추진된 독립공원의 조성 목적에서는 ‘독립’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원의 위생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곳에서 운동과 휴식이 행해지리라는 점은 독립공원이 서구의 근대 공원 개념을 도입한 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²²⁾.

서재필은 독립문 건립의 책임자였으며 독립공원의 배치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독립공원의 계획과 구성에 그의 생각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이유직은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하나는 “서재필 박사가 공원의 설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1896년 7월 4일자 『The Independent』의 기사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The Korean Repository』 1897년 11월호의 “독립협회의 요청에 따라 독립신문을 발행하던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을 설계하고 건설을 감독했다”는 내용에 토대를 두고 있다(이유직, 2008). 『독립신문』 등에 쓰인 독립공원에 관한 기록이 모두 서재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독립공원이 설계되고 조성되는 과정에서 서재필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판단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재필이 독립공원과 독립문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서구의 개념인 공원(park)을 오랜 기간 접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서재필이 그의 자서전에서 “고학하기 좋은 장소로 대도시로서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머물렀으며, 이곳은 미국 독립 당시 대표자들이 모여 독립을 선언하던 곳으로 자유종과 독립각이 있는 곳”(김도태, 1985)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경험이 독립의 상징성을 담은 장소로 이곳을 기획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공원의 조성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벌인 것은 풀리처(Joseph Pulitzer)가 1886년 자유의 여신상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이택휘 등, 1993). 이러한 몇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된 독립공원 조성 계획의 내용에는 공원 조성의 방향과 활용 목적 등이 쓰여 있다.



그림 1. 1896년 7월 2일 독립신문
 자료: <http://www.mediagaon.or.kr>

진보적 정신을 지닌 닥터 제이슨은 내각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도시 근처에 공공 공원(public park)을 조성하는데 추천할만한 것은 과수, 산림, 꽃나무, 그리고 다양한 외국산 관목들을 심어 실험해 보는 일이다. 공원의 일부는 테니스, 축구, 크리켓, 야구 등과 같은 야외 놀이공간으로 두어야 하며, 일부는 국가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공간으로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서재필)는 공원의 일부는 공공을 위한 장소로서 그곳에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일주일에 한두번 유익한 강의 혹은 시의 적절한 주제를 다룬 연설을 듣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The Korean Repository』 Vol.5 No.8, 1898년 8월호).

서재필은 공원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실험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립협회는 지속적으로 도시 녹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서재필이 제안한 내용은 녹지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장소의 활용에 대해서는 운동을 위한 공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 대중을 위한 강의 혹은 연설을 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공원의 일부는 공공을 위한 장소로서 공원에서 강의나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원이 민중의 계몽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은 서재필이 강조해 온 국민 계몽의 중요성이 공원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공원이 조성될 장소 자체는 환경이 적절한 곳이 아니었다²³⁾. 뿐만 아니라 부지 주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고²⁴⁾, 그 위치는 시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공원 계획의 더욱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말끔한 석벽들로 개울은 정비되고 드문드문 그 위로 다리가 놓이며, 개울 양안을 따라서 버드나무가 일렬로 늘어서, 그 아래로는 잘 만든 도로가 있으며, 그곳으로 마차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개울 양편의 담은 점차 언덕쪽으로 높아져서는 부드럽게 언덕으로 이어지고, 이곳저 곳에는 낙엽수와 관목들이 식재되며, 산책로와 도로가 구불 구불 들락날락한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들은 틀림없이 명실 상부한 근사한 공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주된 관심을 끄는 것은 1894년에 헐어버린 영은문 자리에 세워질 독립문 일 것이다 (『The Independent』 1896년 7월 2일 Editorial)²⁵⁾.

개울을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 부드러운 언덕과 구불구불한 산책로, 그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서구의 픽처레스크(picturesque) 공원이 연상된다. 서재필은 공원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서구 공원의 목가적인 풍경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 공원에서 마차와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은 센트럴파크 조성 초기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일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재필은 공원을 도시적 맥락에서 파악했다고 이해된다. 더불어 독립문이 중심이 되어 공원을 조성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은 독립공원의 조성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독립협회는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의 조성을 위해 조직되었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독립협회는 지속적으로 도시 위생 문제와 환경 문제를 비롯한 도시 공원 및 녹지 전반에 관해 다양한 의견과 활동을 펼치게 된다. 1896년 8월 11일 독립신문에서 협회는 '식목일'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 판 돈으로 공원을 만들고 이러한 녹지가 주는 이로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건대 조선 농상 공부에서도 종목일을 작당 하여 춘추로 혼번식 전국 인민을 식히 동리 근처 마다 공헌 때에 나무를 심으게 하고 ... 또 그나무들이 다 자라 쓸만 하게 되면 해마다 얼마식벼여 파라 그돈을 가지고 공원디도 슈져하며 길도 닦으며 서울 인민을 위해서 쓸일이 만히 잇슬터이니 었지 나라에 유조치 안흔 일리이요 ... (『독립신문』 1896년 8월 11일)

또한 1896년 10월 29일 『독립신문』의 논설은 도시민의 건강·위생 및 도시 미화라는 관점에서 성벽 주위를 식수하여 녹지대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허물 것을 착안하고 있었는데, 협회는 성벽을 보존하면서 내측을 따라 식수를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다²⁶⁾. 한편, 회보를 통해 “성시다중수목지익(城市多種樹木之)”, “유익지수이치천재(有益之樹易地遷栽)”²⁷⁾라는 글을 실어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건강, 휴게, 정서적 효과 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즉, 독립협회는 식수를 통한 도시 미화와 도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신문』의 기사에서 드러나는 협회의 이러한 공원 의식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이었다.

VI. 결론

본 논문은 개항 이후 도입된 공원의 개념과 그 실체의 등장을 파악하여 한국 근대 초기 공원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로 해외 도항자들의 공원 의식 형성에서부터 독립공원 조성 시기 신문 기사를 이용한 도시 녹지 및 공원 개념의 대중적 확산에 이르기까지 공원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수신사기록』에서는 '공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의 기록에서 새로운 개념 인식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후 공원에 대한 개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유길준과 윤치호의 기록에서는 실제 서구의 공원을 체험함으로써 공원의 의미, 기능, 역할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윤치호는 유길준이 지녔던 공원의 의미, 역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보다 문화적·예술적으로 공원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지녔던 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필요성의 주장은 귀국 후의 활발한 사회 활동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립공원의 조성은 독립문 건립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의미와 상징을 담은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휴식, 여가, 운동을 위한 장소와 함께 강연을 위한 공간

이 마련되었으며, 그 전체적인 모습은 서구의 픽춰레스크 공원과 닮아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독립신문』 등을 통해 도시 녹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공원 조성 계획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공원관이 보다 확대되어 공유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한국 근대 도시 공원이 단순히 서구의 근대적 장치의 외형만을 모방한 한 것이며 일본에 의해 이식되어 태동되었다는 기존의 견해에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다.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었던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미 확고한 공원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독립공원 조성 과정에서는 지도층 사이에 확고히 형성된 공원의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서 공원의 조성이 추진되었고, 그 성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인들에게는 공원에 대한 의식과 견해가 형성되었으며, 단순한 모방과 이식이 아니라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공원이 등장한 것이다. 공원의 태동기 역사를 규명하고자 했던 본 논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져 왔던 한국 공원의 뿌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주 1. 한국 근대의 기점과 종점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 시점을 하나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대상 혹은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원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항(1876)을 근대의 '기점'으로 본다.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 독립공원의 조성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이 기간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개항기'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즉, 개항기라는 용어는 정확한 기점과 종점을 정의내리는 용어는 아니며, 흔히 1876년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 이전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 또한 이 시기에 해당한다.
- 주 2. 조경 분야에서 근대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근대 도시 공원사』가 있다(강신용과 장윤환, 2004). 책의 내용 중 개항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강신용의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쓰여졌으며(강신용, 1994), 이후 15년 이상 조경학계 내에서는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주 3. 문화적인 면에서 근대란 서구 문물의 수용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성 기원의 외적 성격은 근대성을 이해하기 위한 복합적 층위의 한 부분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근대적 가치를 수용해 왔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근대성'을 찾아내는 것이다(권희영, 1998).
- 주 4. 이 중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일동기유' 뿐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수신사기』를 총 6권으로 정리하여 1~4권은 일동기유로, 5권과 6권은 각각 수신사일기1·2로, 7권은 사회기략으로 편집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http://db.history.go.kr/>).
- 주 5. 『일동기유』 제2권 완상(琏上) 22칙.
- 주 6. 『일동기유』 제2권 연음(燕飲) 20칙.
- 주 7. 『일동기유』 제3권 규조(規條) 6칙.
- 주 8. 『향한필유』 권3 「遊覽箇所」, 「朝鮮國修信使滯京中一覽可爲致館所并日割」
- 주 9. 박물원에 들어갔다. ... 은(殷) 나라 이기(彝器)와 주(周) 나라 서직(黍稷) 담는 그릇, ... 육지에 사는 온갖 날짐승·길짐승과 물에 사는 개충(介蟲)과 인충(鱗蟲)까지도 ... 없는 것이 없다. ... (『일동기유』 제2권 완상(琏上) 22칙)

- 주 10. 조사사찰단은 수신사와 구별되는 비공식적 사절로서,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이들은 신사유람단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 주 11. 공원의 위생상 목적을 강조하는 부분은 시카고의 공원을 소개하는 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다.
... 호숫가에 수없이 많은 조각배를 띄우고, 아침마다 시내 어린이들이 들을 태워 물 위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게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공기가 맑지 못하고, 또 맑지 못한 공기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을 한다 (『서유견문』 제2부 8편).
- 주 12. 공원의 조성 비용과 관련해 강신용은 유길준이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정부측이 부담하는 것이라고도 관찰하고 있다"고 파악했다(강신용과 장윤환, 2004). 그러나 그것은 '시카고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배를 태우는 프로그램 운용 비용'에 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길준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제반 시설의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 이어질 논의에서 센트럴파크의 조성이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주 13. 필라델피아의 페어마운트 공원(Fairmount Park)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강가에 있어 여행자로 하여금 산수의 그윽한 경치를 맛보며, '별유 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구절을 저절로 읊게 하니, 이때백의 이시는 바로 이 공원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서유견문』 제3부 19편).
- 주 14. 『윤치호일기』 1938년 4월 8일, 『윤치호일기』 1929년 11월 10일 참고.
- 주 15. 윤치호가 상해 유학 중 거의 매일 다니던 조계지 공원은 1868년 8월 8일에 개원한 영국 조계 내의 공원(현재의 황포공원)이다.
- 주 16. 『윤치호일기』 1941년 12월 11일.
- 주 17. 『윤치호일기』 1890년 5월 5일.
- 주 18. 『윤치호일기』 1935년 12월 15일, 『윤치호일기』 1896년 10월 1일, 『윤치호일기』 1903년 6월 19일 등
- 주 19. 『윤치호일기』 1893년 10월 7일
- 주 20. 몽소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이곳은 파리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 하나로, 플로 덮인 표면이 온화하게 물결치고 있다: 우아한 코린트의 주랑들이 멈춰선 부분의 끝에 위치한 인공 호수와 함께 방문객에게 지나간 행복한 날들을 떠올리게 하였다. 작은 동굴들은 덩굴식물과 관목으로 덮여 있으며; 빼어난 조각상들은 그들 본연의 우아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 보존된 한편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도록 퇴색되어 있었다. 세련된 예술과 기품 있는 자연의 적절한 결합이 파리 정원의 최고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윤치호일기』 1896년 11월 18일).
- 주 21. 『The Independent』 1896년 7월 4일.
- 주 22. 더불어 이러한 공원의 조성은 대한제국기 도시개조사업이라는 보다 큰 그림에 속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도시개조사업의 내용 중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적 시도로서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고, 이들을 국가의 '자주 독립'을 표방하는 상징적 장소로 계획하였다. 즉,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서제필을 중심으로 한 독립협회가 주도했는지라도 이는 당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던 서울의 근대 도시화 계획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개조사업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태진의 논문(이태진, 1995: 1997)을 참고할 수 있다.
- 주 23. As we look at the site today it looks stony and bare and cheerless enough. (『The Independent』 1896년 7월 2일 Editorial)
- 주 24. "독립관 전후좌우의 토지에 경작하는 일을 한성부에서 금지시키고 있다"(『독립신문』 1897년 4월 8일)라는 내용으로부터 추측되는 바이다.
- 주 25. 이 글의 번역은 이유직의 번역(이유직, 2008)을 그대로 따랐다.
- 주 26. 금 돈을 드러 성을 고치논거슨 어리석은 일인즉 ... 지금 성 안으로 다니며 나무를 모도 도라 가면서 숨으면 멧해가 아니 되야 훌륭한 울타리가 될터이요 문허지고 허술한 성이 숨길터이요 ... 위생에 대단히 유조 할거시 ... (『독립신문』 1896년 10월 29일)
- 주 27.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6년 12월 31일. 강신용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강신용과 장윤환, 2004: 37)

인용문헌

1. 강신용(1994) 韓國における近代都市公園の受容と展開.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강신용, 장윤환(2004)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구: 대왕사.
3. 권희영(1998) 한국사에서의 근대성의 출현. 정신문화연구 71: 3-20.
4. 김도태(1985) 서재필 박사 자서전-을유문고 99. 서울: 을유문화사.
5. 채훈 역(1972) 서유견문. 西遊見聞. 서울: 대양서적.
6. 허경진 역(1995) 서유견문. 西遊見聞. 서울: 한양출판.
7. 이택휘, 김운태, 양재인, 신복룡, 이상철, 이우진(1993) 『서재필』. 서울: 대우학술총서 공동연구.
8. 이유직(2008) 독립공원의 조경사적 의의. 한국조경학회지 36(1): 103-115.
9. 이태진(1995)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1-36.
10. 이태진(1997) 1896~1904년 서울 도시개조사업의 주체와 지향성. 한국사론 37: 181-206.
11. 정용화(1998) 유길준(兪吉濬)의 정치사상 연구: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
13. 독립신문(獨立新聞)
14. 서유견문(西遊見聞)
15. 수신사기록(修信使記錄)
16. 윤치호일기(尹致昊日記)
17. 항한필류(航韓必携)
18. The Independent
19. The Korean Repository
20. <http://db.history.go.kr/>
21. <http://www.mediagaon.or.kr/>

원 고 접 수 일: 2011년 10월 6일
 심 사 일: 2011년 12월 6일(1차)
 2011년 12월 17일(2차)
 개 재 확 정 일: 2011년 12월 22일
 3 인 의 명 심 사 필